

1천만불 ‘수출의 탑’ 을 향해 에이치에스엠(주)

에이치에스엠(주) (HSM · 대표이사 문안용)은 1992년 ‘한승기계’ 사명으로 설립한 이래 라미네이팅기, 슬리터를 비롯해 각종 연포장 및 중포장 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30여 년간 축적된 탄탄한 기술력과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 납품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유망기업이다. 철저한 장인 정신과 늘 고객을 위하는 변치 않는 ‘초심’ (初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이치에스엠은 자사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설계 · 제작해 고객사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 에이치에스엠(주) 문안용 대표이사

Report of the KOPA Member Companies

하고 있다. 30여 년간 차분하게 쌓아올린 업력은 자연스럽게 국내외 업계의 두터운 신뢰로 이어졌다. 대기업·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한번 연을 맺은 거래처라면 또 다시 에이치에스엠을 찾고 있다. 이제는 1천만불 ‘수출의 탑’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에이치에스엠의 현장을 방문했다.

‘첫 마음 그대로’ 에이치에스엠의 설립이념

“1978년부터 연포장 업계에 입문해 여기저기서 일을 배웠다. 다니던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다 보니 내 사업을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1992년 3월 서울 독산동에 한승기계를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직원 둘이서 자본도 부족

한 상황이었지만 ‘트리밍 와인더’ 제작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문안용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당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초창기 어려운 시기를 딛고 업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심을 잃지 않은데 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똑심 있게 자신만의 길을 닦아나갔다.

현재 에이치에스엠은 ISO나 INNO-BIZ 등 다양한 인증과 특허를 토대로 초기 트리밍 와인더를 비롯해 라미네이팅, 슬리팅, 다양한 압출기 장비를 제작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연포장 및 중포장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번에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완비했다. 그 중에서도 압출 라미네이터와 슬리터는



▲ HSM 회사 공장 전경

다양한 업체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업체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기술력을 지녔다. 전 직원이 열정을 다해 납품 후 추가적인 A/S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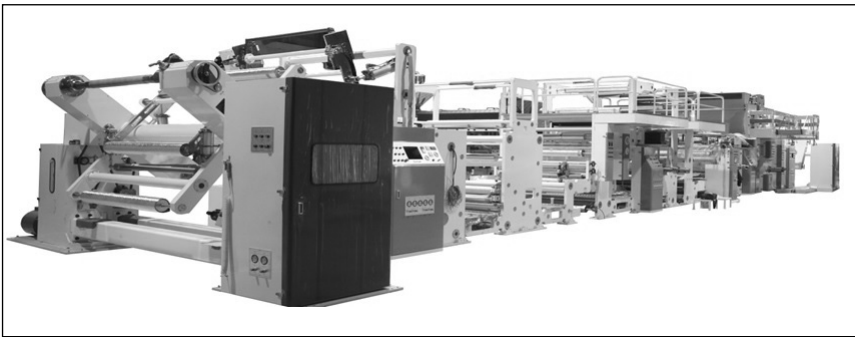
문 대표이사는 “처음에는 트리밍 와인더 30대만 팔아도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년 150대 정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주특기인 라미네이팅 기계도 많이 제작하고 있다”면서 “설립 때부터 도움 주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아주시고, 또 주변에 자발적으로 추천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기계를 한 번 써본 고객이라면 2~3년 안에 설비를 늘리기 위해 꼭 다시 찾아주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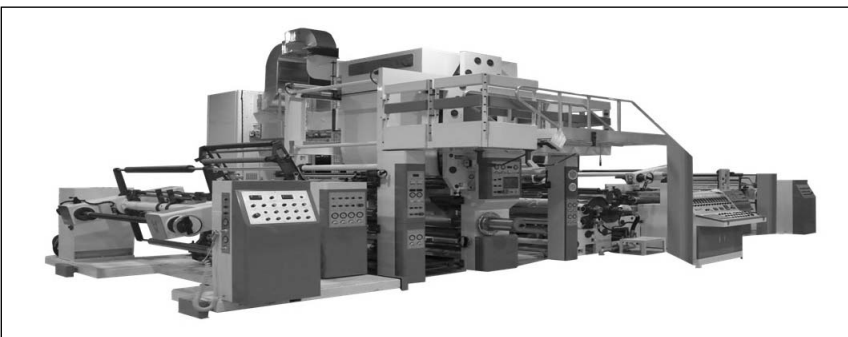
쏠 제품 ‘자체 설계 · 제작’으로 업계 신뢰 쌓아

에이치에스엠은 자체 설계부터 자체 제작까지 모든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회사의 요구조건 등 저마다 다른 제반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반영해 제작하다보니 더욱 향상된 성능과 품질이 나올 수 있었다. 고객사도 생산력에서 확실한 차이가 생기니 만족해하고 입소문도 났다.

문 대표이사는 “32년 동안 거래처들과 많이 접촉해보니 기존 기계와 차별화된 것을 원하는 고객이 많았다. 예를 들면 공장 규모가 작고, 생산량이 많지 않아 각각의 기계를 모두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작은 기계 하나로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품에 따라 부품



▲ HSM Tandem extrusion Coating Laminator



▲ HSM Extrusion Coating Laminator

을 선별하여 제작하는데 특히 티-다이(T-die)의 경우 유명 해외업체 것을 쓰기도 한다. 국내의 티-다이 제작 기술은 훌륭하지만 우리나라의 도금 기술의 발달 문제로 인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원하는 업체는 수입 제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좋은 제품이 나오려면 기계가 좋아야 하고 또 좋은 기계를 만들려면 부품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검증된 부품을 장착해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회사에서 주문을 하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기계를 제작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납품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기본적인 롤-투-롤(Roll-to-Roll) 산업용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가장 최근에 특허를 취득해 제작 중인 ‘스마트 베일러’는 초기 모델보다 진화된 모델을 개발 중이다.

스마트 베일러는 트리밍 와인더로 처리할 수 없었던 종이 재질과 텐션이 가하면 파손되는 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됐다. 특히 스마트 베일러는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덕분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납품을 하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사용 용도에 대해 요청하는 바이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박스 같은 폐기물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베일러를 개발하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문명환 에이치에스엠 부장은 “스마트 베일러는 당초 시판하려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원래 플라스틱 필름, 비닐 등의 폐기물을 맡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했었지만, 다양한 재질과 작업조건에 맞는 여러 요소들을 전부 처리하려다보니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준점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었다. 때마침 업체에서 먼저 찾아와 ‘이렇게 써볼테니 몇 대만 제작해 달라’며 의뢰하였다. 주력인 트리밍 와인더 등 다른 장비들처럼 1년에 몇 십대씩은 아니지만, 시판 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아직 영업차원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성이 있다. 차후 용도에 맞게 시리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달성

에이치에스엠은 최근 2~3년간 코로나19 위기에 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2021년부터 많은 원가 상승 및 자재대란이 발생해 장비를 제작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다. 기존 원가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납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고객사들도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하락했다.

하지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고객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품질이 우선인 고품질 제품을 생산했고, 발 빠른 A/S로 고객사가 장비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며 위기를 넘겼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에이치에스엠은 2022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등 많은 나라에 장비를 수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문 대표이사는 “원자재를 비롯한 부품 등 외국에 발주 내 사오는 물건들이 오는 데 6~8개월 걸릴 때도 있어 납기가 늦어지고 계약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고객사도 에이치에스엠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계약을 해주었다”면서 “코로나19가 한창인 재작년에도 괜찮았지만,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 수출 계약한 것만 총 720만 불이었다. 국내외 모두 합치면 한화로 약 14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치에스엠 장비 수출은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에도 진출하고자 한다. 해외 전시회를 나가기 위해 3D자료 등을 만들며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기술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표이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전시회 참

관에도 적극적이다. 해외 전시장만 나가면 쉬지 않을 것이라고 직원들은 귀띔한다. 오래전부터 금연을 실천한 덕분에 체력이 여전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저녁때 숙소로 돌아오고 나서야 다리에 뻐근함을 느낀다고 문 대표는 말한다.

문 대표이사는 “전시회를 찾는 책자를 참고하든 우선 이것저것 많이 봐야 한다. 해외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처는 28년 정도 연을 이어온 곳도 있는데 유럽 진출이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기술과 품질 면에서는 나와 임직원 모두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포장 트렌드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전했다. 문 대표이사는 “다른 선진국 전시회에 가보면 대부분 환경문제로 플라스틱 산업이 종이에 밀리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쫓아가긴 하지만, 택배나 배달문화가 발달한 국내 특성상 아직은 종이가 플



▲ 사진 왼쪽부터 HSM_Turbo 400, HSM_Twin 052C



▲ 사진 왼쪽부터 ISO9001, ISO14001, 이노비즈 확인서

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 공압출 쪽에선 높은 인건비 때문에 한 번에 작업 하도록 기계화·자동화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공압출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주특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차후에는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분해성 필름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60대까지 연령층 ‘포용’…회사의 큰 자산
3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장점이지만 훌륭한 직원들 없이는 그 노하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표이사의 지론이다. 에이치에스엠은 직원들이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게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직원들이 공존하며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달 생일자 직원들을 위한 파티는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사내기금을 운영하는 등 처우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 후 7~8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 문명환 부장은 “직원들이 힘낼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의 가족분들 및 임직원들을 모시고 단체 여행을 계

획 중”이라면서 “직원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이사는 예전부터 청년층 직원들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물색해왔다. 문 대표이사는 “이전에 있던 상마리(김포시 대곶면) 공장은 컨테이너 들어오기가 애매했다. 공업단지로 들어와야 물류도 직원 채용도 쉬워지고, 해외 손님 맞기에도 수월하다. 장기동과 상마리를 거쳐 2015년 1월 학운 4단지로 이전했는데 지금은 매우 만족스럽다. 요즘엔 김포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젊은 직원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나름의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표이사는 “앞으로 이곳 공단이 더 커질 계획이지만 20~30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병역특례가 가능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힘들고 급여가 적은 실습보다 군대를 가는 경우도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 HSM 회사 외부 전경

‘1천만불 수출의 탑’도 자신만만

업체가 에이치에스엠을 생각보다 작은 규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오래전부터 ‘트리밍 와인더=한승’이라는 공식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객들도 있지만 트리밍 와인더로 시작하다보니 조금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문 대표이사는 “트리밍 와인더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다보니 업계에서는 우리가 큰 기계를 제작하는 줄 모르더라. 하지만 실제로 방문하면 ‘이렇게 큰 기계를 다루는 줄 몰랐다’며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기계 규모를 따지지 않고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업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회사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문 대표이사는 “지난해 700만불 정도 수출하다 보니 1천만불 탑에도 욕심이 생기더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수출해본 적이 없어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끝으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롤-투-롤 장비를 제작하며 최근 몇 년만큼 많은 변화를 거친 때도 없었던 것 같다. 회원사 및 독자분들도 많은 변화를 거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 항상 현재에 안주하기 않고 처음과 같은 마음을 지키는 에이치에스엠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